



2026년 추석 감사예배 및 추모예배

가 · 정 · 예 · 배

가정예배 지침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예배와 예식>편에서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 온 명절과 국경일 등은 우리의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배의 계획과 설교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누리교회는 절기에 맞는 예배 자료를 성도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2) 추모예배는 죽은 자를 예배하는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예식이며, 죽은 자를 추억하며 슬퍼하는 추도예배와도 다릅니다. 사랑했던 가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지켜 죽은 자를 경배하는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가족의 사진을 놓고 그리워하며 생전의 좋은 추억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추석 감사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눈 뒤 검소한 선물과 함께 가족별 장기자랑을 하거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사랑을 실천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가정예배 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주께 와 앉드려(경배와 찬양 304장).....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출애굽기> 3:1~5.....	가족 중에서
설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설교자
감사와 기도제목 나누기.....		다같이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도제목을 나눈다.)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찬9, 통53).....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들어가는 말

예전에 TV에서 ‘보험금을 탄 나무’ 이야기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충청도 어느 마을을 지나가던 큰 트럭이 마을을 지켜준다

는 신령한 나무를 들이받아 쓰러뜨렸습니다. 이후 마을에는 우환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보험금을 받아 나무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우환이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에 최고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이보다 더 신기한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불붙은 떨기나

무가 타지 않은 사건’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중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다가가려 하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오지 말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출 3:5). 모세의 체험은 앞의 나무 이야기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함의 차이’입니다. 두 나무가 있던 곳 모두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지만, 거룩한 이유가 달랐습니다. 충청도의 나무는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지만, 모세가 선 곳은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영향력의 차이’입니다. 충청도의 나무는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게 만들었지만, 모세는 나무가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신앙은 떨기나무에 머무르지 않고 신앙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란 ‘어떤 대상을 존경하고 찬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영어 ‘worship’의 ‘wor-’는 ‘worth(가치)’에서 왔다고 합니다. 즉 온전한 예배란 하나님을 그분의 가치에 합당하게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처음 본 것은 나무였지만 실제로 만난 것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의 가치에 합당하게 섬기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가 시간과 장소의 개념 이상임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예배의 자리에 한 번 참여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장소가 큰 의미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진심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곧 다른 ‘우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는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 순서에 따라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해 있었지만, 그것이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는 시간과 장소, 사람과 순서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그분의 가치에 합당하게 경배하고 찬양하며 섬겨야 합니다.

나가는 말

2026년 추석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된 예배의 삶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사 42:8, 개역개정).

형식이 있다고, 예배자가 있다고 모두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헛된 것을 예배하면 그 예배는 우상숭배가 되고 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건이 됩니다. 정결하고 진정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만 시작됩니다.

추 · 모 · 예 · 배

추모예배 순서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	<시편> 18:1~3.....	다같이
찬송	축복하소서(경배와 찬양 402장).....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대표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열왕기상> 17:8~16.....	가족 중에서
설교	최고의 대접을 위한 준비.....	설교자
찬송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찬429, 통489).....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다같이 사랑했던 가족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좋은 추억들을 나눈다.)	
주기도문		다같이

최고의 대접을 위한 준비

들어가는 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축복(祝福)’입니다. 우리는 복이신 하나님께 받은 대로 서로를 축복하며 높이고 돌봅니다. 이렇게 남을 높이는 것을 ‘대접(待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척사대접’, ‘황제대접’ 같은 표현처럼 중요한 사람일수록 더 잘 대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생활

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은 ‘대접을 위한 준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손님 맛을 준비, 미래를 대비하는 준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준비까지 말입니다. 이 중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준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드릴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비극적이게도 우리 속을 다 뒤져봐

도 ‘선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기록합니다”(시 14:1 이하, 53:1 이하; 롬 3:11~12).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사건은 최고의 대접을 고심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전해줍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둘 다 의지할 것도, 대접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를 대접할 사람이 있다”라며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녀 역시 가뭄으로 대접할 것이 없었고, 엘리야는 작은 떡 한 덩이뿐인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과부의 가정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두 사람은 서로 놀라운 대접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풍성한 대접을 받고, 사르밧 과부는 끊이지 않는 곡식과 기름,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받

게 됩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쁨과 감격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셋째, ‘받은 복을 나눌 결심과 실천’입니다. 우리가 대접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함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도 서로에게 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받은 마지막 것을 서로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최고로 대접해 주시기 위해 이 상황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받은 복을 나눌 결심을 했고, 기쁘게 실천했습니다.

나가는 말

하나님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십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마 7:7~12).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라는 말씀에 친히 본이 되어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기 전에, 어떤 복을 받았는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대접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최고로 대접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